

2006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시험 논술 문제

감독관확인

수험번호 :

성 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80자)로 작성할 것.
- ☒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 ☒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

문 제

다음 예시문 (가)에서 필자가 말하는 ‘씨(實)’가 함의하는 바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예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없었다면 없을수록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해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뛰어넘은 진실성이 있다. 사실, 사실은 사실의 전부가 아니다. 소위 사실이란 것은 現實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현실은 결코 참이 아니다. 현실이라 하지만 現이야말로 實은 아니다. 씨(實)는 언제나 퇴지 않는 속에 있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씨가 피어나온 것이 잎이요 꽃이지만 잎과 꽃이 그 씨가 품었던 전부는 아니다. 씨가 품은 것은 永遠이요 無限이다. 그러므로 꽃마다 잎마다 열매를 내기 위하여서는 떨어져야 하고(현실은 없어지고), 그 씨는 또 더 많은, 더 새로운 씨를 위해 땅 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事實은 史實이 되어야 하고, 死實에 이르러야 한다. 참에서 있음이 나오지만 ‘있는’ 것이 참도 아니요, ‘있던’ 것이 참도 아니다. ‘있을’ 것,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참이다. 始가 終을 낳는 것이 아니라, 終이 始를 낳는다. 神話는 있었던 일이 아니요, 있어야 할 일이다. 신화를 잃어버린 20세기 문명은 참혹한 병이다.

- 함석헌, 『들사람 열(野人精神)』

(나)

성장 사회는 성장 경제에 의해 지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장 경제에 강박적으로 붙들려 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을,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삶의 본질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성장 사회가 낳는 안락한 삶은 흔히 환상에 불과하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사회는 즐겁지도, 쾌적하지도 않다. 그것은 스스로의 부에 병들어 있는 반사회이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갈수록 환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소비재와 서비스에 보다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에 포함된 비용을 잊고 있다. 오염된 공기와 물 그리고 환경의 열악화로 인해서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적 삶을 위한 비용(의료, 교통)이 증가되는데, 거기에는 점점 희소해져가는 자원(물, 에너지, 열려진 공간)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한 진보를 알려주는 척도에 따라 계산할 때, 미국에서는 GDP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진보는커녕 정체와 쇠퇴가 기록되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른바 잘 나가는 경제, 선진 소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 『녹색평론』